

리비안·루시드 ‘돈 버락’… 매출 없어도 전기차株면 OK?

폭스바겐 제치고 시총 상위 자리
버블 우려에도 자금 유입 지속
“테슬라 되기에는 긴 여정 필요”



테슬라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R1T 전기 트럭이 10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전시돼 있다. /뉴시스

전기차 버블에 대한 우려에도 관련주는 전력질주 중이다.

테슬라에 이어 아직 매출 실적이 없는 신생 전기차 제조사인 리비안과 루시드가 시총액 상위 자리를 차지했다. 순수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제2의 테슬라로 낙점 받은 신생 전기차 제조사에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리비안의 시총액은 지난주 상장 당시 주당 78달러로 책정된 후 계속 올라 121%까지 급등했다. 현재 시총은 1400억달러 이상으로 폭스바겐을 앞섰고도 요타와 테슬라에 이어 업계 3위를 차지했다.

리비안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출신

창업자 RJ 스캐린지가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아마존이 20%, 포드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리비안은 현재까지 전기차 배송 실적이 150대에 불과하고 공식적인 매출 실적은 전무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20억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시총은 폭스바겐마저 제칠 정도다.

이와 함께 전기차 업계의 페라리로 불리는 루시드는 지난 7월 나스닥 상장에 상장했다. 신생 상장사임에도 주가는 16일(현지시간) 24% 상승해 55.52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포드를 제친 성적이며 GM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어 1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전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도 1억794만달러(약 1275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는 전기차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순매수 금액이며 해외주식 한 달 순매수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주식 매도로 주가는 한 때 1000달러선이 붕괴됐지만 이내 서학개미들이 저가매수에 나서 테슬라를 1억7407만달러 순매수했다.

이런 와중에도 서학개미들이 매수세에 나서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와 독보적인 믿음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와 CNN 등 주요 외신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심리가 리비안 주가를 계속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금이 폭증하면서 ‘전기차 버블’이 증시에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피터 롤린슨 루시드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가와 시총이 기존 완성차 업체를 넘어 결국 업계 리더인 테슬라 처럼 되는 건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가 급등은 월가가 루시드를 기존 업체보다 테슬라 같은 회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비안은 현재 제2의 공장 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조지아주가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리비안 ‘R1T’에는 현재 삼성SDI의 배터리가 물망에 올랐다. 향후 삼성SDI와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마존은 2019년부터 리비안을 포드와 함께 10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자체 물류운송에 활용하기 위해 배달용 전기차 10만대를 공급받기로 리비안과 계약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바닥 안 보이는 中 부동산 시장 70개 도시 중 52개 도시 집값 ↓

● 차이나 뉴스&리포트

부동산 전반 유동성 문제 확산
전문가들 “집값 더 내려갈 것”



헝다 사태로 시작된 불안감은 중국 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붕괴시키고 있다. 사진은 헝다그룹 전경 /뉴시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됐다. 헝다 사태로 시작된 불안감은 부동산 투자 뿐만 아니라 집값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를 모두 끌어내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도시의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15% 안팎으로 하락했지만 더 내릴 것이라 예측이 지배적이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중국 70개 대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5% 하락했다. 9월 -0.08%에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6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70개 도시 가운데 52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 가격이 내렸다. 특히 2선 도시의 주택 가격 하락율은 -0.32%로 대도시보다 더 가팔랐다.

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중국의 주택 가격 조정은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헝다 그룹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로 부동산 업계 전반에 유동성 문제가 확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가격을 10~15%는 더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탈린 부동산 에이전시의 앤디 리유치 남부지역 최고경영자는 “정부 데이터는 시장보다 뒤쳐져 있다”며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올해 초 고점 대비 최대 15%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당국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기대도 커졌다.

ING 그레이터 차이나의 아이리스 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와 건설 중단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건설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도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토부,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4100가구 공급

연말까지 1만 7000가구 공급 예정

〈3차 사전청약 공급지구·물량〉

지구명	공급물량
하남교산	1000
시흥하중	700
양주회천	800
과천주암	15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 7월과 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가구를 공급 이후 세 번째로 모집공고는 18일부터다.

3차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여가구 등 총 4000여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가구(인구 약 7만8000명)의 주택이 계획됐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가구로 전용 51㎡~59㎡ 형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이다. 각종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며, 천호~하남 BRT 연결 등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서울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신설·확장을 통해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기 신도시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7000가구가 공급이 예정됐으며, 이번 달 4100가구, 12월에는 1만3600가구의 대규모 물량이 계획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

1주택자 매각 보류 가능성… “법 시행 이후 거래 늘 것”

≫ 1면 ‘1주택 양도세 완화…’서 계속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 시행까지는 1주택자들이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 노령가구 등에 대한 유연한 정책도 필요하

다”라며 “취득·양도세는 매물 출회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초고가 아파트 지역 매수세 감소

양도세개편안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 가뭄이 올 것이라 분석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출규제 예고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줄고 있다. 올해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2699건에 그쳤으며, 경기도는 1만399건으로 2012년(8083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여의도, 목동, 판교 등에서는 매수세가 줄어 거래 회전이 낮아질 수 있다”며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 1면 ‘신규 확진 또…’서 계속

이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평가’를 시행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긴급평가는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주간 평가 결과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대본·중수본이 판단

하는 경우 실시한다.

방대본은 해당 위험도 평가지표로 지난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응조치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주간 평균 56%였으나 수도권 병상가동률은 69.5%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및 생활치료센터가동률도 지속적으로 높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